

우리나라의 사료산업 · 축산업의 좌표를 다시 돌아볼 때



정진항

(주)두산 부사장(한국사료협회 부회장 · 원료구매위원장)

회사의 구매팀장이 “옥수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기다렸으나 아무래도 더 오를 것 같아 할 수 없이 228.5 \$에 구매하였습니다” 라고 한 것이 엇그제 이었습니다. 오늘은 구매팀장이 ‘부 원료 구매내역서’ 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입 소액피 가격이 179.5\$이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놀라 한참을 멍~ 하였습니다. 이제는 구매팀장이 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협회의 모든 CEO께서 느끼시는 요즈음의 상황일 것입니다.

세계의 잉여 농산물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 원료자원’으로 인식하던 시대에서 석유의 고가에 대비한 ‘에너지 원료자원’으로 인식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원료가의 고공행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배합사료 생산을 위하여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원료비가 배합사료 원가의 80%, 사료비가 축산물 생산원가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변화가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진화적이지 아니하고 돌연변이적이라면, 우리 사료산업과 축산업의 좌표도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대처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물론 장기적인 대안이 어렵다면 중단기적인 대안이라도 강구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료산업과 축산업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당장의 작은 이익도 중요하지만 시업의 장기적인 전망과 성장을 위하여, 우리나라 사료산업과 축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의 난국을



타개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료산업과 축산업 현재의 상황,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료산업과 축산업은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경제체제를 갖추고 현재와 같은 경제발전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국가 경제발전의 목적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있는 것이고 생활수준의 향상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IMF시기 즈음부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웰빙 인식의 확산은 축산물 소비량을 정체시키고 설상가상으로 WTO, DDA, FTA등은 축산물 수입을 증가시킴에 따라 국내 사료산업은 정체와 어려움이 점차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작년 하반기부터 ‘사료 원료자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급작스럽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료산업의 근간이 되는 축산업을 살펴보면, 양돈업의 경우, 높은 돈육가격의 지속으로 호황처럼 보이지만 4P(PMWS, PRRS, PED, PRDC) 등 질병의 만연과 축분뇨 처리 등 환경문제로 인한 생산성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안정적 성장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발생 양돈농가의 경우에는 농장 경영의 지속이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안정적 성장을 해 온 한우우업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압력과 미국, 캐나다 등과의 잇단 FTA가 기다리고 있고, 낙농

업은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을 저하에 따른 우유 소비량의 급격한 감소, 산란계 및 육계의 경우, AI 등 질병의 상존과 선진국에도 훨씬 못 미치는 계란 소비량,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점증과 규제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축산업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것이 없고 우리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면, 우리의 사료산업과 축산업도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경쟁적이라는 점입니다. 수입 사료원료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질병, 환경, 위생 등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 만의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의 사료산업과 축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면 성장과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산물 수입이 개방화되고 FTA가 확산되는 상황에서의 경쟁상대는 국내보다는 타 국가의 경쟁상대가 더욱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료산업과 축산업은 식량산업 또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타 산업과 달리 여러 가지 경쟁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Cost Leadership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료업계는 각 회사의 Cost Leadership 향상을 위한 기본에 충실한 노력과 함께 우리 업계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할 때 “현재의 급변 상황을 넘어 업계 모두가 Win-Win하는 안정과 성장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